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33. 도로명에서 착안하여 삼삼구옥이라 지었어요. 삼삼구옥! 귀에 쏘옥 들어오는 저희 숙소는 오래되지 않은 구옥을 리모델링하여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며, 여행 오는 대구 친구들의 손을 빌리기도 하여 지금의 삼삼구옥이 되었어요. 삼삼구옥을 나서면 해안 도로가 펼쳐져요. 해질녘 해안 도로 산책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구에서 나고 자랐어요. 군 제대 후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제주에서 지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부터 제주에서 6개월 넘게 살다 보니 숙박업이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구옥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지금의 삼삼구옥을 만나게 되었어요.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4월 24일에 삼삼구옥을 오픈했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삼삼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4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33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예술 같은 해질녘 해안 도로에서의 산책

• 커다란 마당, 아주 오래된 나무 아래 데크에서 즐기는 커피, 바베큐, 와인 한 잔

• 좋아하는 LP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즐기는 진공관 전축

• 자전거와 함께 노을 속을 달리면서 동네 한 바퀴

• 특별한 웰컴 드링크, 시원한 제주 유산균 막걸리와 사이다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자연 속에서 LP 감성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분

• 애월과 중문을 동시에 여행할 수 있는 위치의 숙소를 원하는 분

• 나무 아래 데크에서 예술적 감성을 충전하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마당, 야외 창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 총 4인이 묵을 수 있도록, 슈퍼싱글 침대 2개와 킹사이즈 침대 1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 별채에 호스트가 묵고 있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 202번 버스 정류장이 숙소 바로 앞에, 102번 급행 버스정류장이 약 500m 거리에 있어요.